

## 나가사키 중심의 기리시탄 관련 연표

### 그리스도교의 전래와 번영

1549 년

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함

[이미지 01]

《성 하비에르상》(고베 시립 박물관)

1550 년

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히라도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함

1562 년

오무라 스미타다가 요고세우라(현 사이카이시)를 개항함

1563 년

시마바라 반도에서 포교 활동이 진행됨

오무라 스미타다가 세례를 받고 첫 기리시탄 다이묘(영주)가 됨

[이미지 02]

『일본 순교 정화(精華)』에 수록된 오무라 스미타다상

1566 년            포교를 위해 루이스 드 알메이다 등의 선교사들을 고토로 초청

1569 년

나가사키 최초의 교회 도도스 오스 산토스 교회(제성인 교회)가 건립됨

1570 년

오무라 스미타다가 나가사키 개항을 결정함

1571 년

첫 포르투갈 선박이 나가사키에 입항함

1580 년

아즈치와 아리마(현 미나미시마바라시)에 세미나리오(수도사 육성을 위한 초등교육기관), 분고에 콜레지오(성직자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)가 설립됨

오무라 스미타다가 예수회에 나가사키의 6 개 마을과 모기(현 나가사키시)를 헌납

1585 년

4 명의 덴쇼켄오 소년 사절단이 교황 그레고리오 13 세를 알현함

[이미지 03]

덴쇼켄오 소년 사절단, Augsburg Neue Zeyttung(교토 대학교 부속도서관)

## 기리시탄에 대한 탄압

1587 년

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 신부의 추방령을 공포함

[이미지 04]

‘바테렌(신부) 추방령’(마쓰우라 사료 박물관)

1588 년

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, 모기, 우라카미를 직할령으로 포함시킴

1590 년

덴쇼켄오 소년 사절단이 귀국하면서 서양의 활판 인쇄기 등을 가져옴

1593 년

프란치스코회 선교사 베드로 바우티스타가 일본을 방문하여 동 회의 일본 내 포교 활동을 시작함

1596 년

우라도에서 스페인의 갤리온선이 난파하는 산 펠리페호 사건이 발생함

1597 년

일본 26 성인(선교사와 일반 신자)이 처형되어 순교함

1601 년

나가사키의 곳에 설치된 일본 주교구 대신학교에서 일본인 최초 사제 2 명이 서품을  
부여받음

1602 년

도미니크회와 아우구스티노회의 선교사가 일본을 방문함

1603 년

『곤치리산노리아쿠』가 편찬됨

[이미지 05]

『곤치리산』사본(나가사키시 소토메 역사 민속 자료관 소장)

1605 년

나가사키 지방관이 오무라령 나가사키무라를 쇼군의 직할령으로 삼고 우라카미무라 북  
부를 환지로 지정함

1612 년

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

막부 영지 내에 그리스도교 금지 명령이 내려짐

1613 년

다테 마사무네가 하세쿠라 쓰네히사를 사절로 유럽에 파견함

1614 년

일본 전국에 금교령(禁敎令,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금지한 법령)이 공포됨

1614 년

선교사가 국외 추방됨(이후 선교사가 수차례 일본 잠입을 시도함)

교회 등 그리스도교 관련 시설이 파괴됨

1616 년

중국 선박을 제외한 외국 상선의 기항지가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제한됨

1619 년

나가사키에서 고발자 현상금 제도로 인한 기리시탄 적발이 시작됨

교토의 대순교(신자 52 명이 처형됨)

1622 년

젠나의 대순교(선교사와 신자 55 명이 처형됨)

1623 년

에도의 대순교(선교사와 신자 50 명이 처형됨)

마닐라의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, 아우구스티노회가 합동으로 일본에 잠입함

1624 년

스페인 선박의 일본 내항 및 도항이 금지됨

1626 년

나가사키 부교인 미즈노 가와치노카미 모리노부가 나가사키 주민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명령

1627 년

시마바라반도의 영주 마쓰쿠라 시게마사가 운젠 지고쿠에서 기리시탄의 고문을 시작함

1628 년

그리스도교에서 유래된 그림을 밝게하는 후미에가 도입됨

1629 년

나가사키 부교 다케나카 우네메노카미 시게요시가 나가사키의 기리시탄 탄압을 강화함

1633 년

호쇼센(해외 무역이 허가된 선박) 이외의 선박은 일본 해역으로 진입이 금지됨

예수회 선교사 크리스토팅 페레이라가 신앙을 포기함

1634 년

『바스찬의 교회력』(기리시탄력)이 편찬됨

1635 년

일본인의 해외 도항과 귀국이 전면 금지됨

다이묘(영주)와 하타모토(쇼군 직속 가신)가 테라우케 제도(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개종을 강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)를 바탕으로 영내의 엄격한 신앙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함

1636 년

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이름의 인공섬을 완성해 포르투갈인에게 데지마에 이주할 것을 요구함

[이미지 06]

가와하라 게이가 《데지마도》(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)

1637 년

시마바라·아마쿠사의 난이 발발하며 봉기군이 하라 성에서 농성함(다음 해에 함락)

1638 년

일본 전국에서 고발자 현상금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기리시탄 적발이 시작됨

1639 년

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이 전면적으로 금지됨

1640 년

오메쓰케 이노우에 지쿠고노카미 마사시게를 신앙 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함

1641 년

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이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이전됨

1642 년

예수회의 선교사 안토니오 루비노 신부가 일본에 잠입한 후 다음 해에 마르케스 신부도 일본에 잠입함

1644 년

마지막 선교사인 고니시 만쇼가 교토에서 순교함

1657 년~

오무라 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‘고리쿠즈레’로 인해 400 명 이상이 처형됨  
소토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도사 바스찬이 처형됨

1660 년~

분고쿠즈레(분고노쿠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사건)

1661 년~

노비쿠즈레(오와리노쿠니와 미노노쿠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사건)